

# 정말 평화를 원하십니까?

성탄 축하를 마치고 마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전쟁의 소식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을이 폭격으로 황폐되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살상되며, 수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시작된 날부터 갈망해 온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전쟁이 다시 우리의 현실 속에 아주 당당히 걸어 들어와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평화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비극이 공포의 잔인성과 무자비함을 가지고 그 지역을 휩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성탄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의 하마스 무장단체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마스 무장 그룹에 의해서 수천 발이 넘는 로켓탄이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 되어 왔습니다. 그 로켓탄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적인 공포와 심한 분노 속에 살아오면서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방어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룹은 내 땅에 내가 거주할 권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외치면서 국경 넘어 계속 로켓탄을 발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양쪽은 모두 문제의 원인이 다른 쪽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 세대에 걸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심어왔던 증오와 분노,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길 위에 남기면서

군사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사용되면서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왔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마 솔로몬 왕이 다시 온다고 해도 정확하고 명쾌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떨어뜨리는 미사일이, 불을 붙이는 로켓탄마다, 그리고 발사되는 총알 한방 한방이 사람들의 심장에 깊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세대에 심는 미움과 증오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사람들을 임시로 잠깐 조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더 큰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우리 캐나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측이 즉시 전쟁을 그치고 협상 테이블로 나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총질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가 대화하고 듣는 일만이 이 상황에 해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서로에게 들어야 합니다. 남의 처지에 서서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감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평화 속에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중국어도 마찬가지)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물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평화를 추구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구현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남들과 다투게 될 때

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보상받지 않고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고 주장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던 그 평화는 전혀 불공평하고 지독하게 균형이 잡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계산을 다 하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균형을 잡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화는 우리 양보하고 희생하며 다른 이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 놓을 때에 만들어집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평화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 대신에 십자가가 높임을 받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